

29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총평

담당 : 법무사 최재용

1. 출제 경향

2023년 29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 대법원 주관 시험의 난이도가 오르고 있는 최근 경향에 맞게 이번에도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째, 가장 큰 특징은 기출지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법률,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서 핵심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느껴졌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 히, 이번 29회에서는 상장회사와 관련된 조문과 임원 중에서도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내용들이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법의 제도들이 등기법에 드러나는 것에 있어 다소 출제가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지 않는 법무사시험의 수험에 있어서 해당 지문들로 인해 난해함을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둘 째, 상업등기법을 절차법적인 접근으로 상법과 분리하여 공부하고 출제되던 때와 달리 최근 몇 년간의 출제경향으로 볼 때, 상법의 비중이 보다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상법을 좀 더 비중있게 공부하고 이를 절차법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실무전문가인 법무사시험에서 대표적인 실무과목이므로 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 째, 각 회사를 구분하여 해당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요하는 문제에서 점차 여러 회사나 법인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지문들을 함께 구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정관 기재사항, 등기사항,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비교하는 문제로 여전히 각 회사나 법인들의 등기를 지엽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넷 째, 28회 시험에서 비송사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공부 비중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나, 여전히 비송사건절차법의 공부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상업등기법의 비중을 중시하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9회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상업등기법과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의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전년도와 비교

28회와 마찬가지로 29회의 출제 난이도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8회는 보다 지엽적으로 출제되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 다수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분들이 준비 하던 수험방향과 전혀 다른 모습의 출제로 인하여 난해함을 느꼈을 수 있다면 29회의 경우에는 평년과 같은 중요도의 비율에 따라 출제되었으나, 기출의 비중이 줄고, 그 문제의 지문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작년보다는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예측해볼 때, 작년과 비교하여 1문제 정도의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제난이도 분석 (전년도와 비교) -

구분	상급	중상급	중급	중하급	하급	소 계
28회	4	3	2	4	2	15
29회	2	5	3	2	3	15

- 출제비중 분석 (전년도와 비교) -

구분		28회	29회
상업등기법	총 론	3	2
	주식회사	4	6
	그 외 (기타 법인, 상호, 종합문제 등)	2	4
	소 계	9	12
비송사건절차법	총 론	1	1
	상사비송	3	0.5
	민사비송	1	1.5
	과태료	1	0
	소 계	6	3

3. 30회 수험 전략

이번 29회 수험에서도 유독 타과목보다 제3과목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고, 과락

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어려운 절차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강도와 출제 문항 수(15개)가 적은데 비해 공부할 범위가 매우 넓은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경제적인 수험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위한 평균점수가 60점대 내외인 법무사시험의 경우, 민법, 상법 등 비중이 큰 실체법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목들을 아예 준비하지 않는 전략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특정 과목의 고득점을 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각 과목의 총론 및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 등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맞춤으로써 기본 점수를 지키는 것은 보다 쉬운 방법이며, 과락을 면하고 합격점수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등기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상법 등 실체법의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정리·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상법까지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념이 되는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살을 붙이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업등기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사건의 종류가 많은 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어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출제빈도가 낮은 사건들을 과감하게 구분하여 공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적은 분량으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